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

- 일제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대한 협력 논리(1937~1945)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

초판 1쇄 발행 2009년 10월 30일

발행인 || 성대경

발행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
- 전화 02)2180-2409 • 팩스 02)2180-2423
- 홈페이지 www.pcic.go.kr

제작유통 || 도서출판 선인

-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 E-mail sunin72@chol.com

정가 || 비매품

발간 등록번호 11-1560010-000003-10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X

- 일제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대한 협력 논리(1937~1945) -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간사

이제 마침내 우리 위원회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05년 발족된 이래 4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제1기는 러일전쟁에서 3·1운동까지(1904~1919년), 제2기는 3·1운동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1919~1937년), 제3기는 중일전쟁부터 8·15해방까지(1937~1945년)입니다.

그러나 8·15해방 후 60여 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터여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부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찾아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자료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반민족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2006년과 2007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정된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를 수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지금은 제3기 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지난 4년 반 동안 있었던 위원회 전체 활동을 수록할 종합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과 재작년에 제1기와 제2기 조사과정에 참조했던 사료들을 묶어 모두 일곱 권의 사료집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3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사료들을 선별하여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료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은 제8권에서 제16권까지 총 9권이며, 제8권에는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전시총동원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총독의 훈시와 법령을 비롯하여 조선인 노동력 동원과 병력동원 관계 자료와 친일언론의 전쟁지원 논설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9권에는 1937년 이후 전시체제에 조선인을 적극 동원하기 위해 결성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등 친일단체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제10권에는 일제의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협력했던 조선인의 글을, 제11권에는 1937년 이후, '만주국'의 조선인 통제와 해외에서의 친일협력 자료를, 제12권에는 일제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한국인(조선인)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또 제13권에는 유교계의 친일협력 글과

친일 한시를 모으고, 지금껏 번역되지 못하여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경학원, 조선유도연합회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제14권에는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친일협력의 주제로 기독교·천주교·불교·천도교의 친일관련 자료를 담았습니다. 제15권에는 문화예술계의 식민화 정책과 관련 조직들의 자료를 묶었습니다. 끝으로 제16권에는 조선인이 친일협력을 목적으로 쓴 시와 소설, 희곡과 시나리오, 악보와 가사, 미술작품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용제의 친일 시집 3권 『아세아시집』, 『서사시어동정(敍事詩御東征)』, 『보도시첩』은 조선인이 일본어로 시를 써서 단행본 시집으로 묶어낸 희귀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료집은 우리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함께 발간하는 마지막 사료집입니다. 그래서 제3기에 조사 관련 사료에만 국한하지 않고, 1차 사료집(2007년)과 2차 사료집(2008년)에 실지는 못했으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자료로 활용했던 조선인 훈포상 자료, 종교관련 자료, 문학예술관련 자료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발간한 사료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편찬하는 9권의 사료집뿐만 아니라 이미 간행한 7권의 사료집 내용도 함께 디지털화하여 CD에 담았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고 계신 시민사회와 학계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사료집을 연구와 교육에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의 과거사 가운데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정의로운 미래 사회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발간된 사료집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10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 대 경**

◆ 일 러 두 기 ◆

1.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전체 사료 중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거나 특별한 중요성 또는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혹은 특정 한자어 등 원 상태로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는 한자나 원어를 () 속에 병기하였다. 풀어 쓴 단어, 외국인명의 원음 표기, 필명이나 창씨개명의 본명 등의 경우에도 ()로 병기하였다.
3. 사료의 특정 부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역사적 배경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각주는 ‘번역자 주’나 ‘편집자 주’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4.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표기법은, 사료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 사료의 표기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친일적인 인사들이나 단체에서 나온 글의 경우, 그 ‘친일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천황, 내지, 반도, 지나, 국어, 지나사변, 대동아 전쟁 등이다.
5. 장·절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제목의 경우, 가급적 원 사료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원 제목이 그 의미를 집약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문기사 등 여러 개의 관련사료를 동시에 묶어 수록할 경우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필자명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 제목 왼쪽에 표기하고 ‘,(콤마)’로 연결했다.
단행본명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은 경우, 『 』로 표시하고 연도를 병기했다.
6. 이 책에 수록된 ‘해제’의 역사용어나 개념, 서술내용 중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찾아보기’는 인명, 단체 및 기관명, 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 발간사 4
 * 해제 : 일제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대한 지지·협력의 논리 19

I. 내선일체 및 일본주의 지지·선전

1. 강영석(姜永錫) 33
 1) 황도조선(1~2) 33

2. 김두정(金斗禎) 43
 1) 아세아부흥과 내선일체 43
 2) 흥아적(興亞的) 대사명으로 본 내선일체 48
 3) 신흥아체제하 조선의 사명 50

3. 김병욱(金秉旭) 60
 1) 비상시국에 우리의 각오(상, 하) 60

4. 김성률(金聲律) 67
 1) 내가 생각하는 내선일체 67
 2) 내가 지닌 내선일체의 신념 74

5. 김한경(金漢卿) 74
 1) 동양문화와 일본정신 74
 2) 일본정신의 정화 78

6. 박관수(朴寬洙) 85
 1) 국민교육과 의무교육 85

7. 박희도(朴熙道) 92
 1) 신통아 건설과 우리의 사명 92

8. 방태영(方台榮)	94
1) 지나사변과 나의 각오	94
9. 배상하(裴相河)	95
1) 조국(肇國)의 정신과 조선의 장래(상, 하)	95
2) 내선일체와 신체제	138
3) 일본어의 철학 - 왜 인류는 일본어를 사용하게 될까	143
10. 송금선(宋今璇)	150
1) 단체적 국가관념 주입에 전력	150
11. 신봉조(辛鳳祚)	151
1) 황도에 칙(則)한 국민 연성	151
12. 신태약(辛泰嶽)	152
1) 내지 동포의 제문제 - 여행 중 잡감(雜感) 편편	152
2) 내선일체이긴 하지만 '협화'에 항의하는 신태약 씨	154
13. 심형진(沈衡鎭)	156
1) 내선융화에 대하여	156
14. 유억겸(俞億兼)	158
1) 황국과 나의 심경	158
15. 윤치호(尹致昊)	159
1) 내선일체에 대한 소신	159
2) 동아의 신건설과 내선일체	162
3) 내선일체에 대한 사건	163
4) 내선일체에 대한 이념	164
16. 이동화(李東華)	166
1) 『국방과 조선인』(1933) 발췌	166
17. 이성환(李晟煥)	175
1) 내선일체는 먼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 5가지 운동	175
18. 이영근(李泳根)	175
1) 국체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175
2) 일본관의 확립 - 조선의 입장에서	177
3) 고대 내선일체	183

4) 내선일체의 절대성	185
5) 전통에 사는 생명 -제1원리 확정	186
19. 이창수(李昌洙)	190
1) 의무교육제와 조선인	190
20. 인정식(印貞植)	194
1) 내선일체의 문화적 이념	194
21. 장덕수(張德秀)	197
1) 황국신민의 진정	197
22. 정교원(鄭僑源)	198
1) 내선일체의 윤리적 의의	198
2) 내선일체의 윤리적 귀결	201
23. 최남선(崔南善)	203
1) 일본의 신앙문화와 조선	203
24. 현영섭(玄永燮)	208
1) 정치론의 한 장면 -문학자의 입장에서	208
2) 비상시국과 조선인의 각오	212
3) 내선일체 완성으로의 길	216
4) 사변의 인류사적 의의와 내선일체의 동아협동체 완성에 대한 기여 -사변 제2주년을 맞이하여 생각하는 것	220
5) 내선일체 관견(管見) -연구의 한 각서	223
6) 내선일체와 총후청년의 임무	228
7) 동아연맹론의 대두와 내선일체운동과의 관련	232

II. 일제의 침략전쟁 지지·선전

1. 계광순(桂珖淳)	239
1) 신체제와 청년	239
2. 고승제(高承濟)	240
1) 신문화의 창조	240
2) 대동아문화의 창조	243

3. 김연수(金季洙)	250
1) 일억 일심 매진	250
4. 김중원(金中源)	251
1) 지나사변 후 조선인 무훈담	251
5. 김활란(金活蘭)	256
1) 필승태세 하의 반도국민에게 - 위대한 세대의 인도자	256
6. 문명기(文明琦)	257
1) 『(진정한 세계평화로) 소지일격(所志一檄)』(1937)	257
7. 박흥식(朴興植)	289
1) 매진할 뿐	289
2) 광명의 천지를 향하여	290
3) 대조(大詔)를 받아옴고 광영을 빛내오리	291
8. 송문헌(宋文憲)	292
1) 싱가포르 함락에 부쳐	292
9. 서춘(徐椿)	293
1) 조선동포의 대동아 전쟁관	293
2) 조선총독 고이소(小磯)장군론	299
10. 유광렬(柳光烈)	302
1) 대전 후의 세계관	302
2) 대동아선언의 의의	307
3) 북방수호와 조선의 지위	312
4) 대동아전쟁의 성전 의의	317
11. 유억겸(俞億兼)	321
1)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여 공을 취하자(戰必勝功必取)	321
12. 이묘묵(李卯默)	322
1) 구주전쟁과 미국의 책동	322
13. 이성환(李晟煥)	330
1) 시국이 구하는 청년	330
2) 임전애국자의 대사자후!! 애국의 지성과 이 기회	334
3) 타도 영미침략주의	337

14. 이원영(李元榮)	339
1) 고이소(小磯) 신(新) 총독론	339
15. 이창수(李昌洙)	342
1) 필승과 생사를 초월한 정신	342
16. 인정식(印貞植)	344
1) 동아권의 경제적 성격과 조선의 지위	344
17. 장덕수(張德秀)	349
1) 장기건설의 길로 -홍아청년의 의기를 묻다	349
18. 조동식(趙東植)	351
1) 충성과 효도는 하나 -일본국민의 충효정신	351
19. 조병상(曹秉相)	352
1) 반도청년의 진로 -항상 사회의 선두에 서서	352
20. 차재정(車載貞)	353
1) 옛 동지에 고함, '자연의 길'=전 좌익 제우(諸友)에게 답함	353
2) 동아협동체와 조선 -동아신질서와 혁신	361
21. 최규동(崔奎東)	364
1) 죽음으로 군은(君恩)에 보답한다	364
22. 최남선(崔南善)	365
1) 전쟁과 교육	365
2) 아세아의 해방	367
3) 성전(聖戰)의 설문	368
23. 한상룡(韓相龍)	369
1) 만주사변 5주년을 맞아	369
24. 함상훈(咸尙勳)	375
1) 시국해설 -세계정국의 동향	375
2) 시국해설 -대동아전쟁	378
3) 동아공영권과 민족정책	381
4) 독일의 항복과 태평양전국	383

Ⅲ. 일제의 전시총동원정책 지지·선전

1. 고향경(高鳳京)	389
1) 최저생활에 대한 생각(最低生活隨感)	389
2) 어려움을 기쁨으로 아는 생활	390
2. 김성수(金性洙)	392
1) 새 결의로 총궐기	392
3. 민규식(閔奎植)	393
1) 물심양면으로 국력 증강에 협력	393
4. 방응모(方應謨)	394
1) 타도 동양의 원구자(怨仇者)	394
5. 방태영(方台榮)	396
1) 대동아전과 우리의 결의 - 선전일(宣戰日)의 교훈	396
6. 배상명(裵祥明)	397
1) 저금은 국가 위한 것, 채권 사는 데 씁니다	397
2) 온 국민이 한 가족 기쁨과 고난을 같이 하자	398
3) 역사에 남을 여성이 되자	399
4) 시국의 재인식	399
5) 징용은 영광스런 일, 장병의 의기로 나서기를	401
7. 백낙준(白樂濬)	402
1) 내일의 승리는 오늘의 실천에서	402
8. 서춘(徐椿)	404
1) 조선과 총력운동	404
9. 손정규(孫貞圭)	407
1) 비상시국과 반도의 여성	407
2) 우리에게 각오 있다	408
3) 일터가 바로 싸움터, 근로동원에 다 나서자	408
4) 여성들도 전열에 바치자, 조국애의 적성	409
10. 신봉조(辛鳳祚)	410
1) 탄 판이 된 여학생	410

11. 윤태빈(尹泰彬)	411
1) 본도(本道) 국민총력운동에 대하여	411
12. 이각중(李覺鍾)	411
1) 『국민정신총동원독본』(1938)	411
13. 이숙중(李淑鍾)	430
1) 반도부인과 근로봉사	430
2) 다시 한 번 굳게 해야 할 진충보국의 결의(답화)	431
3) 징병과 어머니의 길 -복종의 정신	432
14. 이윤중(李允鍾)	433
1) 경제신체제의 이념	433
2) 「재정금융기본방책 요강」 완성, 폭리취체령의 강화	437
15. 이창근(李昌根)	440
1) 획기적인 학제개혁 전 반도에 끓어오르는 찬가 -반도통치의 추진력	440
16. 이창수(李昌洙)	441
1) 대화일치(大和一致)와 전의(戰意) 양양	441
17. 임숙재(任淑宰)	444
1) 필승태세하의 반도국민에게 -만대의 유산을 남기자	444
18. 장덕수(張德秀)	445
1) 적성(敵性)국가의 정체	445
19. 조기홍(趙圻烘)	448
1) 조선의 옷에 대하여	448
2) 생활개선에 대하여	449
20. 최남선(崔南善)	450
1) 특공대의 정신으로 성은에 보답합시다	450
21. 최린(崔麟)	454
1) 충동원 강화에 대한 사견	454
22. 한상룡(韓相龍)	455
1) 황실의 미영(彌榮)을 숭봉(頌奉)하다	455

23. 현영섭(玄永燮)	456
1) 조선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전망	456
2) 국민정신운동과 우리의 임무	462

IV. 징병·징용 등 조선인 강제동원 지지·선전

1. 고향경(高鳳京)	469
1) 전시의 가정 -가정은 국가의 뿌리	469
2) 징병 감사와 우리의 각오, 건군정신에 투철	470
2. 김동준(金東準)	471
1) 3천년래의 숙원	471
3. 김두정(金斗禎)	472
1) 징병제 실시와 반도청년의 연성(鍊成)	472
2) 『반도황민생활물어(半島皇民生活物語)』(1943)	476
4. 김병태(金秉泰)	544
1) 전시체제에 순응할 마음의 무장 필요, 촌각도 이완은 절대 불허한다	544
5. 김사연(金思演)	545
1) 지나사변과 나의 각오	545
2) 입영 학병에 부탁 -실력을 발휘하라	545
6. 김성수(金性洙)	547
1) 문약(文弱)의 고병(癩病)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	547
2)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	549
3) 학병을 보내는 은사의 연두 -이 시대 최고의 광영, 빛나는 조선청년의 특권을 살리라	551
7. 김연수(金季洙)	552
1) 장병의 노고를 사모하다	552
2) 금일, 감격의 징병제 실시 -무상(無上)의 광영	552
3) 단호히 승리	553
8. 김윤정(金玗禎)	553
1) 엄숙히 생각하라 -지원병이 되는 참뜻	553
2) 숭고한 감화력 -어머니의 정신이 자식에게	554

9. 김활란(金活蘭)	555
1) 여성의 무장	555
2) 징병제와 반도여성의 각오	557
3) 거룩한 '대화혼'을 명심, 적 격멸에 일로매진	558
4) 열혈남아이거든 이때를 놓치지 말라	560
10. 남백우(南百祐)	561
1) 쌍수를 들어 찬탄할 뿐	561
11. 박마리아(朴瑪利亞)	561
1) 어릴 때부터 바다에 친토록	561
2) 칼 잡고 일어서자	562
12. 박상준(朴相駿)	563
1) 무적해군 빛내라	563
2) 시사여귀(視死如歸)의 정신, 어머니의 자각이 필요	563
13. 박인덕(朴仁德)	565
1) 생산확충의 정신, 이것으로 일을 하라	565
2) 우리도 국군의 어머니 - 국군어머니의 긍지	565
3) 반도 부녀자들에게도 결전동원령은 내렸다	567
14. 배상하(裵相河)	569
1) 반도의 젊은이들에게 보낸다 - 징병제도와 함께	569
2) 도의(道義)조선의 확립과 금일의 반도청년	571
15. 서춘(徐椿)	573
1) 반도청년이여 분기하라	573
2) 징병제 실시와 반도인의 감격	578
16. 송금선(宋今璇)	580
1) 군국의 어머니 - 반도여성 책무도 크다	580
2) 징병과 어머니의 길 - 국어·자녀·봉사·신앙	580
17. 신봉조(辛鳳祚)	582
1) 조선에도 징용령	582
18. 유각경(俞珏卿)	583
1) 시국과 여성의 각성	583

2) 어머니 자신부터 가질 야마토 다마시	585
3) 당신들도 우리도	585
19. 유광렬(柳光烈)	586
1) 징병제 실시와 조선인의 각오	586
2) 해군지원병제 실시와 반도 청년의 영예	589
20. 윤덕영(尹德榮)	594
1) 반도의 지원병에 바란다	594
21. 윤치호(尹致昊)	595
1) 징병제 실시와 조선청년	595
22. 이각종(李覺鍾)	596
1) 황민의 본령을 발휘할 날은 오다	596
2) 적전(敵前)에 새해를 맞이하여	597
23. 이성환(李晟煥)	597
1) 지원병사 제군에게 -대동아 건설의 젊은 용사여, 오늘과 내일은 너의 것이니라	597
24. 이영근(李泳根)	599
1) 징병제와 조선 어머니에게	599
25. 이원영(李元榮)	602
1) 전국(戰局)의 긴박과 청년에게 요망	602
26. 이창수(李昌洙)	604
1) 징병제 실시와 반도인의 각오	604
2) 국민징용과 전력증강	609
3) 국민징용과 성업익찬(聖業翼贊)	613
27. 장덕수(張德秀)	615
1) 출진하는 반도인 학도에게	615
2) 빛나는 정도(征途)를 축복	617
28. 장응진(張膺震)	618
1) 부르심을 받자올 날을 앞두고	618
29. 조동식(趙東植)	621
1) 군인의 아내를 육성할 여학교 교육의 새 정신	621

30. 조병상(曹秉相)	622
1) 지원병의 부모로서	622
31. 최남선(崔南善)	623
1) 보람 있게 죽자	623
2) 나가자 청년학도야 -학문의 진리를 행동으로 바치라	624
3) 출진하는 청년 학도에게 고함 -‘성전(聖戰)’ 의식에의 투철	628
32. 한상룡(韓相龍)	630
1) 대망의 지원병제도 실현을 기뻐하며 -내선일심의 실(實)	630
2) 성은에 봉보(奉報) -징병제 실시와 조선청년	630
33. 허하백(許河伯)	631
1) 충후여성의 힘	631
2) 충후부인의 각오	633
34. 현상윤(玄相允)	636
1)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사(士)는 국지원기(國之元氣), 멸사구원(滅私久遠)의 생을 찾자	636
35. 현영섭(玄永燮)	638
1) 역사창조의 날	638
36. 홍승원(洪承源)	639
1) 황은에 보답할 길	639
2) 목숨을 아끼지 말라 -세상에 나서 값있는 죽음을	640
37. 황신덕(黃信德)	641
1) 어머니의 책임 더 한층 중대	641
* 찾아보기	643

해제 : 일제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대한 지지·협력의 논리

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1.

1937년 7월 중일전쟁부터 1945년 8월 해방까지의 시기를 대체로 '암흑기(暗黒期)'로 규정해 왔다. 이것은 식민 지배를 받은 모든 조선인이 피해자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곧 전시파시즘기(1937~1945)에 대한 '모든 조선인'의 대응과 반응이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전시파시즘 체제에 적극 협력해 순응한 친일지식인들은 일방적인 자기논리 속에 갇혀 있었다. 일제의 침략전쟁이나 식민통치를 지지하고 선동한 친일지식인의 대부분은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운동 경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는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큰 공을 세운 '선구자'로 포장되어 왔다. 또한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이를 토대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1949년 8월 이후 사실상 와해될 때까지 지식인으로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인물은 극히 소수였다. 오히려 대다수의 친일지식인들은 친일 행위가 은폐·축소되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시파시즘기 친일지식인들의 내용과 논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연구도 매우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발행된 신문이나 잡지 등을 살펴보면 친일지식인들이 어떻게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선동하고, 일제 식민통치를 지지하고 협력했는지 상세히 알 수 있다. 전시파시즘기 발행된 모든 신문·잡지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를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표된 친일지식인들의 글 대부분은 철저하게 이러한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대표적인 신문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국민신보』·『경성일보』는 물론이고 『동아일보』·『조선일보』나 만주에서 발행된 『만선일보』 등이다. 잡지는 『조광』·『삼천리』·『대동아』·『춘추』·『인문평론』·『국민문학』·『신시대』·『반도지광』·『가정지우』·『家庭の友』·『半島の光』·『내선일체』·『녹기』·『동양지광』·『총동원』·『국민총력』·『방송지우』·『재만조선인통신』 등이 대표적이고, 이외 각종 개인 저서가 있다. 이 중 자료집에 수록된 친일지식인들을 필자별로 구분하면 대략 다음 <표>와 같다.

〈표〉 일제 침략전쟁 및 식민통치에 대한 지지·협력의 글

필자	제목	출전	년월일
고승제	大東亞文化の創造	국민문학	1943년 3월호
계광순	新體制と青年	내선일체	1940년 12월호
김두정	東亞問題特輯：亞細亞復興と内鮮一體	동양지광	1939년 5월호
	國民精神總動員へ應召されたる皇國臣民として覺悟	총동원	1940년 1월호
	徵兵制實施と半島青年の鍊成	동양지광	1943년 3월호
	興亞的大使命으로 본 「内鮮一體」	삼천리	1940년 3월호
	新興亞體制下に於ける朝鮮の使命：齋藤子爵紀念會募集入選論文(佳作)	조선	1940년 12월호
半島皇民生活物語	조선사상국방협회	1943(저서)	
김병욱	非常時局に於ける吾人の覺悟(上·下)	녹기	1938년 1월·3월
	高度國防國家建設과 志願兵	삼천리	1941년 4월호
김사연	支那事變と私の覺悟	신시대	1941년 7월호
김성률	余の考へる内鮮一體	조선	1939년 3월호
	私の抱く内鮮一體の信念	내선일체	1940년 2월호
김성수	이 時代 最高의 光榮－빛나는 朝鮮青年의 特權을 살리라	매일신보	1943년 12월 10일
김연수	將士の勞苦を偲ぶ	총동원	1940년 1월호
	斷じて勝て	경성일보	1944년 1월 19일
김한경	東洋文化と日本精神	동양지광	1939년 2월호
남백우	雙手를 드리 讚歎할 뿐	삼천리	1940년 7월호
문명기	眞の世界平和へ：所志一檄	雲岩書齋	1937년 4월(저서)
박홍식	迎春寸語－邁進あるのみ	총동원	1940년 1월호
박희도	新東亞の建設と我等の使命	동양지광	1939년 4월호
방응모	打倒! 東洋의 怨仇者	조광	1942년 2월호
방태영	支那事變と私の覺悟	신시대	1941년 7월호
배상하	肇國の精神と朝鮮の將來(上·下)	녹기	1940년 11월호
	内鮮一體と新體制	녹기	1941년 2월호
	日本語の哲學－なぜ人類は日本語を使ふやうになるか	녹기	1942년 3월호
	半島の若人に贈る－徵兵制度と共に	녹기	1942년 6월호
	道義朝鮮の確立と今日の半島青年	녹기	1943년 10월호
서춘	半島青年よ 奮起せよ	총동원	1939년 10월호
	朝鮮同胞の大東亞戰爭觀	조선	1942년 3월호
	徵兵制實施と半島人の感激	조선	1942년 7월호
손정규	非常時局と半島の女性	총동원	1939년 7월호
송금선	團體的 國家觀念 注入에 全力	삼천리	1942년 1월호
송문현	新嘉坡陷落到に就て	동양지광	1942년 3월호
신태악	内地 同胞의 諸問題－旅行中 雜感 片片	삼천리	1940년 5월호
	内鮮一體でこそあれ ‘協和’に抗議の辛泰嶽氏	삼천리	1941년 12월호
심형진	内鮮融和に就き	조선	1921년 11월호

엄창섭	聯盟員の覺悟	국민총력	1941년 2월호
유각경	時局과 女性の 覺醒	삼천리	1938년 8월호
유억겸	皇國과 余의 心境	삼천리	1941년 4월호
유진오	時局と文化人の任務	총동원	1940년 1월호
윤덕영	半島の志願兵に望む	총동원	1939년 10월호
윤치호	內鮮一體に對する所信	동양지광	1939년 4월호
	東亞の新建設と內鮮一體	총동원	1939년 6월호
이각중	皇民의 本領을 발휘할 날은 오다	半島の光	1943년 7월호
이동화	國防と朝鮮人	황인사	1933년(저서)
이성환	志願兵士諸君에게 - 大東亞建設의 젊은 勇士여 今日과 明日은 너의 것이나라!	삼천리	1940년 7월호
	臨戰愛國者의 大獅子吼!!, 愛國의 至誠과 此機會	삼천리	1941년 11월호
	처라, 世界의 攪亂者!! 冲天하는 半島愛國熱의 大獅子吼 - 打倒英米侵略主義	삼천리	1942년 1월호
이숙중	半島婦人と勤勞奉仕	총동원	1939년 8월호
	女性と國民總力	국민총력	1941년 2월호
이영근	國體生命に生きるもの	녹기	1939년 9월호
	日本觀の確立 - 朝鮮의 立場から	녹기	1940년 1월호
	すめら朝鮮	일본청년문화협회	1943년(저서)
이원영	小磯 新總督論	동양지광	1942년 8월
	戰局の緊迫と青年への要望	동양지광	1944년 4월호
이윤중	經濟時事解説	국민총력	1941년 8월호
이창근	劃期的의 学制改革全半島に沸る讚歌 : 半島統治의 推進力	경성일보	1938년 2월 18일
인정식	東亞圈의 經濟的 性格과 朝鮮의 地位	삼천리	1941년 1월호
장덕수	長期建設의 道へ - 興亞青年의 意氣を問ふ	총동원	1939년 12월호
	皇國臣民의 眞情	총동원	1940년 1월호
	敵性國歌의 正體	삼천리	1942년 1월호
정교원	'內鮮一體'의 倫理的 意義	조선	1939년 10월호
	內鮮一體의 倫理的 歸結	삼천리	1940년 1월호
조기홍	各方面の人士に訊く : 朝鮮의 婦人服について	녹기	1937년 9월호
	非常時局國民生活改善問題特輯 : 生活改善について	총동원	1939년 8월호
조병상	半島青年의 進路 : 常に社會의 先頭に立て	총동원	1939년 7월호
	志願兵의 親として	총동원	1939년 10월호
차재정	넛 同志에 告함, '自然의 길' = 前左翼諸友에게 答함	삼천리	1938년 11월호
	東亞協同體와 朝鮮 - 東亞新秩序와 革新	삼천리	1939년 1월호
최규동	死を以て君恩に報い奉る	文教의朝鮮	1942년 6월호
최남선	戰爭과 教育	삼천리	1939년 6월호
	日本의 信仰文化と朝鮮	文教의朝鮮	1935년 3월호
최린	總動員強化への私見	총동원	1940년 1월호

한상룡	滿洲事變五周年に當りて	조선실업구락부회보	1936년 10월호
	「대망의 지원병제도 실현을 기뻐하며」-내선일심의 결실	중추원통신	1938년 2월호
	皇室の彌榮を頌し奉る	총동원	1940년 1월호
현영섭	政治論の一齣-文學者の立場から	朝鮮及滿洲	1936년 9월호
	非常時局と朝鮮人の覺悟	朝鮮及滿洲	1937년 9월호
	內鮮一體完成への道	녹기	1938년 1월호
	朝鮮國民精神總動員運動展望	동양지광	1939년 2월호
	事變の人類史的意義と內鮮一體の東亞協同體完成への寄與	동양지광	1939년 7월호
	內鮮一體管見-研究の一覺書	총동원	1940년 1월호
황신덕	어머니의 책임 더 한층 중대	매일신보	1943년 5월 13일

2.

친일지식인들이 발표한 글은 논설·수필·소설·시·연설문 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논설류의 글이 일반적이었고, 수필이나 시·소설과 함께 선동적인 연설문 등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주로 내선일체와 황민화, 전쟁협력 옹호와 지원병 지원, 신체제 협력, 일본 역사와 문화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글이었다. <표>에서 보이듯이 친일지식인들은 교육학술·언론·종교·문학·친일단체·관료 등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학술>

고승제·김두정·김성수·손정규·송금선·유억겸·유진오·이숙종·인정식·장덕수·조기홍·현영섭·황신덕

<언론>

김한경·박희도·방응모·서춘·이원영

<종교>

심형진·유각경·윤치호·최린

<문학>

최남선

<관료·중추원>

계광순·김병욱·김사연·김연수·남백우·문명기·방태영·송문헌·엄창섭·윤덕영(자작)·이승우·이창근·정교원·조병상·한상룡

<경제·친일단체>

박홍식(경제), 배상하·신태악·이각중·이동화·이성환·이영근·차재정(이상 친일단체), 이윤중(경찰)

<기타>

김성률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장이나 교수로 학생·청년들에게 지원병·학병·징병을 선동하거나 전쟁협력을 미화하는 글을 발표했다. 또한 여성계를 대표해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지키며 총후(銃後)에서 보국(報國)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자 임무라는 것을 강조했다. 보성전문 교장 김성수는 「대의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는 크다」·「이 시대 최고의 광영-빛나는 조선청년의 특권을 살리라」, 덕성여자실업학교 교장 송금선은 「군국 어머니-반도여성 책무도 크다」·「징병과 어머니의 길」, 보성전문학교 교수 유진오는 「시국과 문화의 임무」, 성신여학교 교장 이숙중은 「반도부인과 근로봉사」·「여성과 국민총력」·「다시 한 번 굳게 해야 할 진중보국의 결의」·「복종의 정신」, 보성전문학교 교수 장덕수는 「장기건설의 길로-홍아청년의 의기를 묻는다」·「출진하는 반도인 학도에게」·「빛나는 정도(征途)를 축복」, 중동학교장 최규동은 「죽음으로 군은에 보답한다」, 경성가정여숙 교장 황신덕은 「어머니의 책 임 더 한층 중대」 등이 대표적인 글들이다.

다음으로 논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추면서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거나 일본 문화의 우월성 등을 주장한 글은 주로 지식인층에 의해 발표되었다. 고승제의 「대동아문화의 창조」, 김두정의 「아세아부흥과 내선일체」·「홍아적 대사명으로 본 '내선일체」·「신홍아체제하에 있어서 조선의 사명」, 김성률의 「내가 생각하는 내선일체」, 김한경의 「동양문화와 일본정신」, 박희도의 「신동아의 건설과 우리의 사명」, 배상하의 「조국의 정신과 조선의 장래」·「내선일체와 신체제」·「일본어의 철학」·「도의조선의 확립과 금일의 반도청년」, 손정규의 「비상시국과 반도의 여성」, 서춘의 「조선동포의 대동아전쟁관」·「징병제 실시와 반도인의 감격」, 윤치호의 「내선일체에 대한 소신」·「동아의 신건설과 내선일체」, 이각종의 「황민의 본령을 발휘할 날이 오다」, 이광수의 「조선문화의 장래」·「내선(內鮮)청년에게 기함」, 이동화의 「국방과 조선인」, 이성환의 「처라, 세계의 교란자!! 충천하는 반도애국열의 대 사자후-타도 영미침략주의」, 이영근의 「국체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일본관의 확립-조선의입장에서」·「스메라 조선」, 이윤종의 「경제신체제의 이념」, 인정식의 「동아권의 경제적 성격과 조선의 지위」, 차채정의 「동아협동체와 조선-동아신질서와 혁신」, 최남선의 「전쟁과 교육」·「일본의 신앙문화와 조선」, 현영섭의 「비상시국과 조선인의 각오」·「사변의 인류사적 의의와 내선일체의 동아협동체완성으로의 기여」 등이다.

관료나 중추원 참의 등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선전·홍보하거나 '조선인'들이 체제에 순응하도록 계도하는 글을 발표했다. 김병욱의 「비상시국에 있어서 오인의 각오」, 문명기의 『소지일격』, 엄창섭의 「총동원의 각오」, 이창근의 「획기적 학제개혁 전(全)반도에 뚫어오르는 찬가 - 반도통치의 추진력」, 정교원의 「내선일체의 윤리적 의의」·「내선일체의 윤리적 귀결」, 조병상의 「반도청년의 진로」·「지원병의 부모로서」 등이다.

3.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일제는 적극적인 사상통제에 들어가 1937년 7월 조선중앙정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 각 도에도 정보위원회를 설치했다. 사상통제와 시국선전 활동을 총괄하는 조선중앙정보위원회는 언론통제와 정보수집, 여론 파악 및 조정, 불순분자의 동향파악 등 정보활동과 인쇄물·영화·강연·좌담회 등을 통한 시국선전, 기타 애국일의 설정·황국신민서사 제정·국방헌금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1938년부터는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조선통치 방침으로 내선일체(內鮮一體)를 전면

에 내세웠다. 이로써 내선일체는 조선통치의 최고 지도 목표가 되면서 지원병제도 실시, 교육제도 개선 등 실천적 운동을 표방했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비롯한 사상통제를 위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한편, 이른바 ‘주의자’에 대한 탄압·감시와 함께 적극적인 전향정책을 폈다. 국체나 침략전쟁에 비판적이거나 민족적인 성향을 지닌 지식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본위의 단체는 대부분 통폐합되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지식인들은 체제에 협력하면서 적극적인 친일의 길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지식인들의 친일협력은 일제의 강압과 강요에 따른 것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의 장래’를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가 지향하는 바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때 구체적 실천방향까지 내세운 ‘내선일체’는 진정한 제국의 신민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준 것이다.

윤치호는 1939년 2월 동양지광사가 주최한 ‘창간기념과 영화의 밤’ 강연에서 내선일체는 ‘병합’ 이래 조선인을 일본인과 하나로 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이라고 보았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 조선인도 병합 이래 19년이 지난 오늘에야 비로소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어른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봅니다. 요컨대 병합 이래 29년간의 총독정치는 우리 조선인을 일본 내지인과 일원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따라서 총독정치의 각 단계가 달라짐에 따라 정치 그 자체에도 다양한 뉘앙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등(齋藤) 총독의 통치 목표는 내선융화(內鮮融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원(宇垣) 총독시대로 바뀌어서는 자력갱생이 표어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의 남(南) 총독의 시대가 되어서는 내선일체의 표어가 통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각 시대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표어의 변경 그 자체에는 다양한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본질적인 줄기는 조선의 민도(民度)를 일본 내지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내선일체를 완성하려는 데 있습니다(「내선일체에 대한 소신」, 『동양지광』 1939년 4월호).

내선일체는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일관된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용어의 차이일 뿐 근본적인 것은 조선통치 이래 늘 같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윤치호는 “내선일체의 길 이외에 조선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우리는 내선일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민족적 진로를 발견하고 또 이 도로에서 행복한 장래를 전폭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라고 스스로 답변했다. 더 나아가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라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천황의 성지(聖旨)’로 이미 하나이며,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일본인들의 내선일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일본에서 사회주의운동을 벌이다가 귀국 후 체포되어 전향한 김두정은 좀 더 구체적인 논리를 앞세워 내선일체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역대 총독의 조선반도 통치의 실적을 잠시 살펴보면, 데라우치(寺內) 총독의 군정시대는 조선반도의 치안 선무 공작 및 토지정리에서 큰 성과를 올렸고, 사이토(齋藤) 총독의 문화정치 시대에는 4년제 보통학교 3면(面) 1교(校) 주의 실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허용, 군사경찰

제의 개혁, 경작지 확충이나 관개시설을 통한 산미증식정책 실시, 섬유 분야의 경공업 장려 등 조선반도의 문화적 발전을 촉진시켰다. 우가키(宇垣) 총독의 개발정치 시대에는 조선 이북 개발 사업 착수, 9도 목화 재배 장려, 조선 이북 면양 사육 정책의 구체화, 산금장려, 심전개발(心田開發)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 확충에 이르기까지 조선반도의 자립을 위한 실적을 올렸다. 현 미나미 총독 취임 이래는 오로지 내선일체 구현 시대를 형성하고 국체명징(國體明徵)에 기초를 둔 황민화 정책, 국방적 책무의 분담을 허용하는 특별 지원병제 실시, 일본과 조선의 황민화 교육의 획일화를 위한 학제개혁, 일본인과 조선인 가족제도의 획일화를 위한 창씨제도 실시, 재차 초등 교육 확충 계획기간 단축에 따른 의무교육제 실시 준비, 농공병진(農工併進) 정책 구체화에 따른 전진 병참기지적 정비 등 내선일체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잇따라 실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 조선반도 황민이 모두 기뻐하는 바이다. 성지(聖旨)를 받드는 이러한 미나미 총독의 현명한 국책 수행으로 조선반도의 2,000만 황국신민은 더욱 폐하의 적자로서 연성(鍊成)되고 내선일체는 점차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新興亞體制下に於ける朝鮮の使命」, 『조선』 1940년 12월호).

김두정은 이 글로 '사이토자작기념회모집논문'에서 가작으로 뽑혀 상금 80원을 받았다. 적지 않은 분량의 이 논문의 목차는 '1. 세계사의 신전환과 신흥아 체제, 2. 내선일체는 흥아 건설의 제일보, 3. 흥아 건설에 있어서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반도, 4. 흥아 건설에 있어서 전진 문화기지로서의 반도, 5. 아시아 해방에 있어서 반도의 전위적 사명, 6. 일본정신 발양에 있어서 반도의 전위적 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에서 보이듯이 세계체제에서 일본의 선도적인 위치와 전쟁 수행을 위한 조선의 역할 및 사명과 함께, 동문동조(同文同祖)로서 일본(인)과 조선(인)은 하나의 뿌리와 정신을 갖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종류의 논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선일체를 주장한 친일지식인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그러면서 내선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언어인 '국어(일본어) 습득'은 반드시 필요하고(김두정, 위의 글 및 「徵兵制實施と半島青年の鍊成」, 『동양지광』 1943년 3월호; 김병욱, 「非常時局に於ける吾人の覺悟(上·下)」, 『녹기』 1938년 1월·3월; 배상하, 『日本語の哲學—なぜ人類は日本語を使ふやうになるか』, 『녹기』 1942년 3월호 등), 심지어 조선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현영섭, 「內鮮一體完成への道」, 『녹기』 1938년 1월호). 이와 함께 동조동근으로서 하나의 뿌리를 갖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그동안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와 생활양식의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내선일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적인 위대한 황도정신의 밑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인정식, 「內鮮一體의 文化的理念」, 『인문평론』 1940년 1월호).

4.

전시파시즘기 친일지식인들은 내선일체와 황민화를 위한 실천적 행위로서 침략전쟁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원병·징병·학병 등 전시동원을 위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를 내선일체로 위한 과정이자 황국신민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았다. 1938년 2월 지원병제도 실시가 발표된 후 봉천주재(奉天駐在) 일본총영사관 부영사 최탁은 봉천방송국에 출연해 일본 국민의 3대 의무 중 병역 의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의 부모는 모두 그 자제들을 지원병이 되도록 독려하고 청년들은 분연히 일어나 지원병에 동원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現役志願兵制度の實施と朝鮮人の覺悟」,

『재만조선인통신』 1938년 2월호). 중추원 참의 한상룡도 지원병제도의 실시와 함께 교육의 의무·참정권 문제 등이 점차 실현되는 것은 큰 영광이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후에 권리를 운운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진정한 내선일체의 결실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조선인의 진로에 일대 광명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망의 지원병제도 실현을 기뻐하며-내선일심의 열매」, 『중추원통신』 1938년 2월호).

『충동원』 1939년 10월호는 지원병 관련 특집 기사를 마련해 조병상·윤덕영·이광수 등이 글을 실었다. 중추원 참의 조병상은 지원병제도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가족과 장남을 설득해 학교 졸업과 동시에 지원병에 지원하게 된 과정과 ‘입소 후의 실상’, ‘장래의 희망’을 글로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장남 태환(台煥)은 다행히 선택받아 목하 훈련소에서 훌륭한 황군(皇軍)의 일원이 되려는 목표를 향해 전진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 입소할 때까지의 경과 및 현재의 상황 및 장래에 대한 희망 등을 말씀드리자면,

〈입소에 이르기까지〉

저는 아주 이전부터 지원병제도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소망이 이루어져 작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저 자신은 매우 만족하고 일찌감치 장남을 지원시키기 위해 먼저 가족과 상담한 뒤 결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필요했고, 나아가 본인에게 지원병의 취지를 설명해서 납득시켜 결심을 하기까지 또 2개월, 그리고 올해 3월 학교 졸업과 동시에 마침내 지원을 한 것입니다. 본인의 결심보다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일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지원병제도의 취지를 일반에게 인식시킬 필요성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입소 후의 실상〉

입소를 결정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입소 후에는 완전히 바뀌어 가족들 모두 오로지 훌륭한 황군의 한 사람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저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각오를 하고 지원한 만큼 어려움을 이겨내고 왕성한 원기로 진지하게 하루하루 연마 수양에 정려(精勵)하고 있는 모습에서 진정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진정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에서 입소자의 영향을 받아 유형무형으로 다소 긴장감이 일상생활에 구현화되고 있다는 점은 지원병 가족이 지닌 큰 부산물입니다. 몇 가지 점을 든다면,

하나, 아이들의 면학하는 자세가 좋아진 점

하나, 시국인식이 일상생활에 나타난 점

하나, 군사 사상이 보급된 점. 즉 신문기사 등도 군사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동네의 출정 군인 가정 위문을 자주 가거나 국방부인회 등에 열심히 참가하면서 군대 일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종전보다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장래의 희망〉

장래의 희망은 지원하도록 할 때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장래도 변함은 없습니다만, 당초의 가족적 결의는,

하나, 완전한 황국군인이 되라.

하나, 지원병은 조선청년의 선구자이자 내선일체를 구체화한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志願兵の親として」)

자작 윤덕영도 「반도의 지원병에게 바란다(半島の志願兵に望む)」라는 글에서 지원병제도로 입소한 조선 청년들의 우수함을 칭찬하고, “반도인이 진정 폐하의 적자(赤子)로서 충성을 보여주는 것은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저 책상 위에 수백, 수천 권의 책을 쌓아두고 일본정신을 운운하는 것보다 제군들이 실지(實地)에 배낭과 총을 어깨에 걸치고 이향(異郷)의 진흙땅을 묵묵히 진군하는 모습을 볼 때, 진정 우리를 감격케 하고 거기에서 약동하는 살아 있는 일본정신을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로써 ‘강국 일본’의 자랑스러움을 강조했다. 이광수는 「지원병 송가(頌歌)」를 지었다.

님(君, 천황)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라며 귀여운 자식은 총을 들고 작별을 고향에
 늠름함에 가슴 벅차면서 죽어 더욱 영광 있으라 나는 기원하리
 스메라기(천황)의 은혜로운 이슬에 조선(韓)의 들녘도 흠뻑 젖고서야 나는 일어섰노라
 백년을 살면서도 옳은 일에 이 몸 바칠 날 언기 어렵다 하네
 내가 남기는 이 마음은 대대로 님의 치세(大御代, 천황의 치세)를 그리워하리라 지키리라.

대동광업회사 중역 이성환은 『三千里』 1940년 7월호에 발표한 글에서 앞으로의 전쟁을 ‘동양 대 서양, 황인종 대 백인종’의 전쟁으로 예상하면서 지원병 제도를 징병제로 확대할 것과 청소년이 ‘진정한 내선일체의 주역이 될 것을 주장했다(「志願兵士諸君에게—大東亞建設의 젊은 勇士여 今日과 明日은 너의 것이니라」). 중추원 서기관 김병욱은 삼천리사 기자와 대답하면서 지원병이 “도시의 지식층, 특히 전문, 대학생 중에서 많이 나와야 할 것은 물론, 재산가의 자제와 관공리의 자제 및 귀족층의 자제 속에서도 심신이 다 건전한 지망자가 속출”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지원병제도로 인하여 재연된 이 상무열(尙武熱)로 인하여 국가에 대한 의무와 사명을 다”함으로써 “한 덩어리로 고도국방국가건설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高度國防國家建設과 志願兵」, 『三千里』 1941년 4월호).

일본 내각은 1942년 5월 조선에 징병제를 적용할 것을 결정했고, 1944년부터 본격적인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1942년 징병제 적용이 결정되자 최규동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조선 동포에 대한 병역법의 실시가 확정되어 반도 2,400만 민중들도 드디어 1944년부터 병역에 복무하는 영예를 입게 되었다.”면서 “국방의 책무에 임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고 또 남아 최고의 영예”라고 하였다. 자신을 비롯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밤낮으로 청소년 학도의 지도에 임하면서 오로지 강고한 신념과 군인훈의 연성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死を以て君恩に報い奉る」, 『文教の朝鮮』 1942년 6월호). 서춘은 「징병제실시와 반도인의 감격」(『朝鮮』 1942년 7월호)에서 징병제 실시는 조선인에게 ‘영광’이고 ‘명예’인바, ‘황군의 일원이 되는 광영을 짊어질 청소년’은 정신 수련과 ‘국어’(일본어) 습득에 진력하여 중대한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도 동포’에게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은 “반도동포에 있어서는 국방의 중책을 똑같이 부담하여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성업(聖業)에 참가하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무상의 광영과 명예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것은 “반도동포가 33년 전 병합 무렵 문자 그대로 내선일체를 철저히 실천해 온 사실, 1938년 지원병제도가 창시된 이래 해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 반도인 청년층의 진충보국의 의젓한 모습이 실증된 사실, 또 10년 이래 만주, 지나 사변을 거쳐 대동아전쟁으로 이행하는 사이 반도동포가 현시한 애국의 적성(赤誠)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내지인 동포와 함께 일신을 군국(君國)에 바쳐 명실공히 황국신민으로서 봉공을 다 하겠다.”는 “다년의 염원이 받아들여

진 결과”라고 했다. 따라서 징병제 실시는 반도동포에 대해 “당국이 확신을 갖고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 준 것”이므로 “지금의 우리 반도동포의 기쁨을 필설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넘칠 뿐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영광에 보답하는 길은 우선 반도의 모든 청년이 강인한 황군의 일원이 되는 자격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체력과 기술보다도 정신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신이란 곧 ‘일본정신의 진수’인 ‘멸사봉공 진충보국의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 “이 일본정신을 체득하여 천황귀일의 대신님을 기르고 항상 한 목숨을 대군에게 바치겠다는 결의를 굳게 하며 싸움에 임하여 충성용무한 군인이 된다는 각오”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 자세를 기르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의 내지화’ 즉 생활환경을 일본화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황국의 어머니’에 의한 가정 훈련이 되어야 하고 일반사회에서도 ‘국어 습득’에 힘써야 할 것을 역설했다. 징병제 실시를 계기로 조선인 전체가 충량한 황국의 신민이 되는 ‘중대책무’를 완수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김성수는 “이 시대 최고 광영은 젊은 청년과 학도들에게 있다. 나라의 흥융을 결하는 결전의 마당으로 총을 메고 돌격하는 그 열화와 같은 조국애와 동포애는 오직 젊은이들만이 가장 힘차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 한 번 길이 열린 이 ‘순국의 대도’에 시종여일하게 돌진함으로써 학도의 머리에는 최대의 광영이 길이 빛날 것”이라고 하면서 징병제에 적극 지원하도록 독려했다(「이 시대 最高의 光榮 - 빛나는 朝鮮靑年의 特權을 살리라」, 『매일신보』, 1943년 12월 10일).

5.

1940년 7월 일제는 ‘기본국책요강’을 결정하고, 8월에 ‘신체제성명’을 발표해 관민 협동의 강력한 국민 조직의 확립과 자발적인 국민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체제는 거국일치의 강력한 정치체제 아래 ‘국민’을 통합해 고도국방체제를 확립하고 신동아공영권을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대정익찬운동’, 조선에서는 ‘국민총력운동’이 그것이다.

조선총독부 식산국 산금과 사무관 계광순은 「신체제와 청년」에서 중일전쟁의 당위성과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한 생산력 확충, 군수자재의 원활한 공출로 장기전 및 장기건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총력 발휘’와 “모든 부문에서 고도국방국가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개인적 이해를 초월해서 일체의 곤란과 어려움을 인내하여 신체제의 확립과 발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하는 신체제와 내선일체의 상관관계를 병행관계·종속관계·인과관계의 세 종류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신체제와 내선일체는, ① 본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병행으로 관련시킬 수 없고, ②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최고 이념에 이르기 위한 목표가 같고 근원이 같으므로 어느 것이 주가 되고, 종이가 되는 것은 따질 수 없으며, ③ 따라서 양자의 올바른 관계는 인과관계에서 찾아야 하는데, 완성된 국민을 지향하는 신체제는 완성되어야 할 국민을 목표로 하는 내선일체에서 기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내선일체가 찾아오지 않는 한 신체제는 무의미하다고 규정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신체제는 당면 목표인 고도국방국가의 실현을 완수했을 때, 팔굉일우의 대이념에 도움이 되

있던 것으로서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팔굉일우는 영원한 평화이고 영원한 평화가 존재하는 곳에 국가의 국방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선일체가 완성되고 팔굉일우의 대이념에 의존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양된다. 팔굉일우는 세계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전체가 일체일 때 일본·조선처럼 부분적인 일체는 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內鮮一體と新體制』, 『綠旗』 1941년 2월호).

1940년 10월 총독 미나미는 신체제를 선언하면서 직역봉공(職域奉公)을 강조했다.

본 운동을 계기로서 관민의 정신사상의 일대 갱신을 도모할 것, 즉 신체제의 기본관념은 만민 의존 직역봉공에 있다. 따라서 관민 각인의 경우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근로는 각인 자신의 이익추구가 아니고 마치 응소군인(應召軍人)이 혼연히 그 신명을 군국(君國)에 받치어 명령된 국방의 부서에 취하는 것과 동양(同樣)의 심경에서 충후에 있어서 각인 참전 직능보국의 엄숙한 의의를 갖는 것을 모든 기회에서 강조하여 본 운동의 신전강화(伸展強化)를 기할 것이다(『三千里』 1940년 12월호).

직역봉공의 신질서·신윤리·신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신체제운동은 모든 분야로 확대되었다. 친일 지식인들은 신체제의 건설을 외치면서 낡은 기구와 사상·문화를 청산할 것을 주장했고, 신체제운동 아래에서 자신의 분야가 나가야 할 방향과 당위성을 밝혔다. 연희전문학교 교수 유억겸은 「황국과 여(余)의 심경」(『三千里』 1941년 4월호)에서 ‘천황의 적자’로서 혼연일체로 매진해야 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로서 내선일체운동이 있음을 명기(銘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내선일체운동은 “황국 영원의 변영조국(肇國)이상의 실현, 반도 민중의 행복을 생각한 국가적 운동”이므로 “혹은 가정에 혹은 사회에 혹은 직역(職域)에 있어서, 우리들 각자가 이 운동의 강화, 내선일체의 구현에 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믿는다. …… 따라서 어떠한 직역에 있어서든지, 이 신념과 각오로서 신도(臣道)의 실천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또한 불초(不肖)하나마, 전심봉공(專心奉公) 국은(國恩)의 만일(萬一)이라도 보(報)할 것은 서(誓)한다”고 하였다. 송금선은 전시체제에는 무엇보다 건강한 체력이 중요하므로 “조선 가정에서 자라는 여학생들에게 지금같이 국가가 비상시에는 국제적(國體的) 국가관념을 인식 시키는 데 필요하거니와 아직까지 전시생활에 경험이 없는 조선 가정에 여학생을 통하여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건전한 정신생활을 시키기 위해 “영화는 보도연맹의 지정영화를 보게” 하고, 서적은 시국에 관한 내용을 권하며, 매일 신문 읽는 습관을 갖추게 한다고 하였다(『團體的國家觀念 注入에 全力』, 『三千里』 1942년 1월호).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I. 내선일체 및 일본주의 지지·선전

1. 강영석(姜永錫)

1) 황도조선(1~2)

황도조선(1)

1. 나의 입장

나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여기에 간단하게 이를 알리고 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이전에 공산주의를 신봉하여 인류의 행복과 평화는 공산주의 이외에는 길이 없다고 인정하고, 그 실천운동에 종사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현재 공산주의운동을 가장 배격하는 일본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의 식자계급 대부분이 본질적으로는 아직 이해하지 못 하는 팔굉일우(八紘一宇) 즉 세계일가주의(世界一家主義)를 찬양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조선민족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반드시 그 이유와 논거가 있다. 나의 인식이 불순한 세력의 추수(追隨)이거나 혹은 비겁한 자의 구차한 변명인지를 충분히 냉정하게 비판하고 조선의 지도자들은 그 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내가 논하는 것이 인류의 행복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믿을 만하고 현실성이 있다고 동감하는 자는 반드시 이를 연구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원래 공산주의자로서도 공산주의가 실현됨으로써 자기 민족·국가가 쇠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공산주의에 찬동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보다 현실적으로 자기 민족·국가의 이익을 대표할 이론이고 나아가 대다수의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산주의를 찬미하는 것이라면 조선에서도 조선인 공산주의자는 우선 조선 민중의 행복과 발달을 기대했기 때문에, 또한 세계평화를 건설할 수 있다는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가담하여 실천운동에 희생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는 조국을 갖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민족주의를 배격했다. 물론 민족주의는 어떤 경우에는 자민족의 행복을 위해 타민족의 불행을 고려하지 않고 추구되는 것이고 이러한 민족주의가 인류 전체의 정의와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서, 현대인의 지성으로서 배격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제국주의시대에 비로소 민족문제를 발견하고 민족문제를 극복한 이후의 세계에서는 민족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세계평화를 노동자의 손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보자면 노동자는 조국을 갖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유물변증법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물변증법은 생명을 가진 생명체의 발전법칙을 무(無)생명체의 형태변화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전 세계의 역사를 유물론적 방법론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이며 그것은 물론 18세기 이래 물질문명을 유도한 근대과학의 태도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과학의 무전제(無前提), 추상중립성(抽象中立性)이라는 비(非)생명적 독단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근대의 정신과학과 자연과학 모두 생명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 것이다. 요컨대 자유주의적 정신과학은 개인을 개개의 자아 안에 가두어 두고 상호본질적인 유기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정신의 왕국을 다루려고 한 것이며, 자연과학은 기계화·수학화·기술화·원자화 하여 죽은 자연의 왕국을 다룬 것이다. 따라서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은 모두 현실과 생명에서 거리가 먼 과학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도 자연 그 자체는 기계적으로 분석된 총계가 아니며 생성하는 생명적 자연이다.

인류사회도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 생명력의 발전법칙으로 파악할 때만이 정당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며 개인·선조·민족·국가 등의 선형적인 본질인 생명성을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인류사회를 단순한 일개의 물질로 보는 유물변증법은 확실히 사회를 정당하게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이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생명적으로 선조·민족·국가를 형성하는 일원으로서 그 유기적 연대 관계를 무시하고 계급적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근거이다.

일본의 천황은 그 토대를 외국처럼 경제기구에 제약받은 합리적 계약제도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체의 실체인 생명적 기본사회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황정치는 생명체가 생명을 상실한 다든가 절대위력을 가진 다른 힘에 강제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면 인류사회의 생명이 끝나지 않는 한 영구적이다.

일본이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을 받들고, 이 천황정치가 미래에도 무궁할 것이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가족을 보더라도 그 가족의 어른인 아버지가 자식에게 지배를 받아 통솔되는 가정은 변태적이며, 본가(本家)는 통상 본가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이라는 생명적 대가족의 본가는 황실이며 천황은 그 부모이다. 일본민족이라는 하나의 큰 생명체는 어떠한 경제사회인가와 관계없이 근간이며 어떤 시대의 사회(시대사회)에서도 기본이다. 그것은 인간사회가 어떠한 생산수단을 채택하든 그 사회가 인간을 주체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시대사회는 기본사회의 발전에 따라 개변(改變)되는 종속형태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지배자나 착취자가 아니라 지도자이자 통솔자, 애호자로서의 본질을 갖기 때문에 가장(家長)이다. 아버지는 혈연적으로는 부모이며, 지도적으로는 주인이고, 정신적으로는 스승이다. 그리고 결코 권리자가 아니다. 오히려 가정을 이끌어 가는 의무자이다.

천황도 일본이라는 생명체에 있어서 이와 같다. 일본이라는 기본사회의 조직에서 천황은 혈연중추로는 부모이며 심연(心緣)중추로는 스승이고 치연(治緣)중추로는 주인이다. 이것이 일본 국체의 실체이다. 천황은 신민(臣民)을 착취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그 관계는 혈연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이며 심연적으로는 스승과 제자이며 치연적으로는 주인과 종자이다. 천황은 본(本)이며 신민은 말(末)인 본말관계이다. 인간이 인간아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는 한 유구한 생명으로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해되는 것이며 또한 무궁하게 발전하는 본질이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현명한 학자라 하더라도 일본을 정당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농민의 자식들 아니 노동자·농민 자신들이 어째서 전장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며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는 것인가. 특히 육체적으로 죽을 듯한 고통을 견뎌내며 어째서 천황폐하만세를 외치는 것인가. 만약 만세를 외침으로써 그 유족이 크나큰 행복이라도 누리게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민족생명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것이며 자신의 작은 생명을 큰 민족생명에 귀일(歸一)하는 정신의 발현이다.

과거 코민테른과 ‘내지(內地),¹⁾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지식이 얼마나 천박했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된다.

너무 장황해지므로 상세한 논의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 기회가 생길 때 다시 하기로 하고 가능한 간단히 나의 입장을 결론짓고자 한다. 우리 천황정치는 생명체의 본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유구한 생명의 본원성(本元性)으로 체험적으로 발생한 정치이기 때문에 그 지도정신은 육체적인 인자(仁慈)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계급에 이익이 되거나 특정 계급에 손해가 되는 편파적인 정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 쪽 편에만 서는 특정한 계급의 대표자도 아니다. 신민을 일시동인(一視同仁) 적자(赤子)로서 지도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또 이러한 일시동인의 필연적인 확대관인 - 즉 국내적으로는 일시동인의 사상이 국외적으로는 - 사해동포 사상은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해동포의 대승적 입장이 타민족까지도 동일시하는 팔굉일우라는 세계주의로 발전해 온 것이다. 이를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일본국가가 제국주의적 야심을 갖고 있다고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이러한 견해를 갖지 않은(즉 다른 세계관으로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럴 만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주의(主義)는 전 세계를 일가(一家)로 하여 각 민족국가를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존중하고 포용협화(包容協和)하여 일체적 인류의 종합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격적 결합을 원하는 것이지 결코 민족 간에 상하·차별·우열 따위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주의를 본질적으로 상하·차별·우열을 만드는 사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고, 공산주의의 오류를 청산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머리에서 안출(案出)된 주의·이론이 아니며 어떤 민족보다도 인간의 생명적 발전을 배육(培育)·발달시켜 온 일본민족 전체의 생명을 토대로 발전한 이상이다. 일본민족 생명 전체가 3천 년 동안 체험적으로 바라온 이상이다.

다만 그 실현이 제국주의시대인 현대에 발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자본주의 모순이 청산·극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국주의적 야심 운운 하는 의혹이 생겨난 것이다. 이것은 일본을 시대적으로만 이해하고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이 내지보다 더 큰 힘이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조선에만 유리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찬동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이상을 생명으로 하지 않는 시대사회만을 가진 조선으로서는 단지 입장을 유리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진실로 세계평화의 근거인 일본의 힘을(즉 본문계단(本門戒壇)으로서의 일본의 힘을) 소멸시키는 것이 되어 정의실현을 전혀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을 이렇게 인식하지 않고서는 참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일본의 존재목적은 일본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조선의 해결과 행복은 이 주의와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이 주의의 실현을 수행함으로써 해결되는 것

1) 일본.

이며 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이상에 반대하는 것은 조선인이라면 민족적 편견을 가진 자이며 일본인이라면 천황의 정신에 배반하는 미완성 신민이다.

우리 천황정치의 정신은 결코 타민족을 무시하고 타민족을 일본인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나 민족이나 독일민족을 일본인의 변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진의(眞意)를 배반하지 않도록 자성해야 한다.

실재하는 민족을 존중할 줄 모르고 무시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본의 천황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물며 다른 민족을 권력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의 보조자는 될 수 있어도 “민(民)을 지도하는 근본은 교화(教化)에 있다”는 신성한 천황정치를 익찬(翼贊)하는 것과는 한참 동떨어진 일이다. 어떤 민족이라도 그 문화를 존중하고 동일한 신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폐하의 적자가 되도록 진심을 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선일체를 인격적 결합으로서 수행하지 않으면, 즉 해결해야 할 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형식적·기계적으로 한다면 언제까지나 완전한 일체가 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일본의 모순세력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본다. 진실로 협화(協和)정신을 그대로 실천하고 일본이 장래 팔굉일우를 실현하는 간선(幹線)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의 하나 이를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다면 세계에서는 누구도 이 신성한 주의를 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팔굉일우의 현실적 시급성은 내선의 일체적·인격적 결합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나의 견해는 지금까지의 일본의 경제기구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본주의 경제기구를 채용하여 온 사실을 가장 냉정하게 국제학적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처럼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두 계급이 혈전을 통한 혁명운동을 할 필요가 적어도 일본에는 없다. 일본의 생명체로서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면 그 모순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천황을 중심으로 무난하게 극복해 왔는지를 알 것이다. 이것은 생명체의 발전법칙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들이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자본주의적 형태는 물론이고 그 잔재까지도 완전히 스스로 해결할 것이며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본국체는 명징해지지 않으며 또한 동아시아의 참된 평화는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런 국내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일본의 기능은 온전히 현현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까닭에 국내정치혁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그 주의 실현이 완성 가능하다. 일본이 자본주의 경제기구를 갖고 있으므로 그것이 바로 제국주의적 야심을 청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관측하는 것은 정당한 일본인식이 아니다. 일본을 정당하게 파악하려면 일본의 국체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야 하며 국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생명변증법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생명변증법을 이해하려면 유물변증법을 극복·발전하고 그 오류를 청산해야 한다.

원래 자신의 세계관이 있으면 그것에 다소 모순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발전시킬 우위에 있는 다른 세계관이 수립되지 않는 한, 자신의 세계관을 바로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과거 공산주의 실천운동을 할 때에 공산주의에 대한 아무런 의문도 없기 때문에 행동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단지 대체로 세계관의 기본문제가 그러한 의문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훌륭한 세계관이 없는 한, 자신의 세계관을 버리고 그 동안 공허한 인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에서 전향을 운운하는 것은 진실로 양심적·학문적 발전경로를 밟지 않는 한, 또한 양심적인 세계관의 수립이 없는 한, 그것은 비인격적인 기만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당국도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전향을 요구하기보다는 더 훌륭한 고차원의 세계관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상선도는 모두 무의미하며 도로(徒勞)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과거의 지도자들이 진실로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 대중의 행복을 충심으로 바란다고 한다면, 어떠한 세력의 압제에도 자신의 냉정함과 반성과 정의에 대한 애호와 그것을 기초로 한 고집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이론을 실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 대로 그것을 사수하는 것은 관념자이자 기회주의자이지 진실로 조선을 사랑하고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다.

평화를 건설하려는 열의가 있다면 관념적으로 사수하여 마르크스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양심적인 확신을 얻으려면 생명변증법을 연구해야 하며 또한 일본의 국체에 대한 정당한 과학적 인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것이 가장 정당한 태도라고 본다. 이하 각 항목에 대하여 나의 견해를 논하겠지만, 요컨대 어디까지나 정의를 사랑하고 학적 양심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입장이자 태도이다.

(계속)

(5월 25일)

〈출전 : 姜永錫, 『皇道朝鮮』, 『東洋之光』 1939년 7월호, 57~63쪽〉

황도조선(2)

유물변증법의 극복

공산주의자는 오늘날까지 공산주의가 무엇보다도 이 지상에서 가장 진리에 근거한 이상(理想)이며, 인간이 역사적 필연성에 따라 마지막으로 그리고 틀림없이 실현하게 될 사회의 궁극적인 이상이라고 하는 확신을 견지하는 자이다.

또 그러한 진리에 입각하여 공산주의는 다른 모든 주의·주장에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주의·주장·이상은 공산주의에 의해 비판·극복·청산되는 것이지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절대적·최고최선(最高最善)적으로 소유한 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공산주의를 최고·지선(至善)의 진리로서 받아들여 온 것이다.

공산주의자가 과학적 태도를 신조로 하면서도 오히려 독선주의자가 된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이 공산주의자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전 인류가 공통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비(非)공산주의의 각 진영에서 정말로 학문적·양심적으로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지 위에 오른, 보다 고차원의 보다 완전한 주의·주장·이상을 통해 생활적으로 공산주의의 오류를 지적하여 극복할 수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산주의까지를 포함하여 참으로 전 인류의 불행이다.

공산주의 실현을 크게는 러시아가 수행하는 도중에 있고 작게는 세계 각국의 국내에서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외한 각국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필연적으로 공산주의의 방지·방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대립이 그다지 중대하지 않은 나라들은 소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가장 첨예화된 나라들은 적극적으로 방공협정의 진영을 결성했다. 이것이 오늘날 국제정세의 가장 현저한 국면이다.

국제적으로 이와 같이 방공진영을 결성하게 되었다고는 해도 국내적으로 강력한 방공조직이 없으면 방공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방공협회가 조직된 것이고, 조선대중은 직간접으로 방공협회에 종사하고 있을 터이다. 그리하여 방공협회는 조선대중을 공산주의적 영향으로부터 떼어내고, 무언가로 지도·조직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본 바로는 그 무언가가 확실하지 않다. 즉 목표가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 이래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이래서는 그 장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는가.

공산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는 이유를 학문적으로 구명하자면 그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으나, 대별해 보면

1.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지적하는 모순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반(反)국제적 모순으로서도(수정개편되지 않고) 여전히,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정당성을 실증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
2. 따라서 조선민중이 공산주의적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이익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
3. 공산주의가 틀리다고 하는 논거가 아직 박약한 것.

등일 것이다.

만일 나의 견해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방공이라는 것은 팔굉일우의 이상실현을 통해 성립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팔굉일우라는 이상은 결국 인류 전체의 이상이며, 모든 주의·주장·이상이 갖는 정당성을 모두 포용하는 최고 이상이어야 하며 인류가 당연히 열망해 마지 않는 이상이며 세계관이어야 한다. 이것이 지도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세계성을 갖지 않는 일부 국가나 민족, 일부 사람들만의 이상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상이 아닌 것이다. 바꿔 말하면 공산주의보다 더 이상적이고 고차원적이며 더 우위에 있는 이상, 즉 이러한 정당성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상위의 팔굉일우의 이상으로 극복·청산함으로써 공산주의방어라는 목적달성은 성취되는 것이다.

참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개념의 다름이 아닌 사상전이라는 폐해가 동반될 것이다. 사상전이라고는 해도 싸움은 되지 않는다. 하나의 사상이 다른 사상보다 우위에 있다면 우위에 있는 사상은 싸우지 않고 다른 사상을 극복하여 그 사상을 가진 자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청산하고 지양하여 자기 발전을 하게 하는 것이다. 즉 싸운다는 것은 우위에 있지 않은 사상의 자기 반성의 뇌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상전이 진실로 우위에 있지 않은 사상들의 도토리 키재기라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최상위의 이상으로 지도임무에 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는가.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방공사업도 국내와 국외를 가릴 것 없이 **이와 같은 팔굉일우의 이상이 그 지도원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선민중으로부터 공산주의적 영향을 제거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지도원리어야 하며, 사회생활을 이 원리로 개편·수리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활동과 함께 성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지적하는 모순은 이 이상사회실현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별도로 공산주의 운운할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방공사업은 그 단독으로는 완벽을 기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개조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운명적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공협회가 그 방면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구를 변경시켜 그 운동을 병행하도록 할 것인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별도로 그 방면의 운동을 조력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방공협회는 우선 첫째로

1. 공산주의의 학문적·양심적 비판
2. 지도원리의 확립

이 없어서는 안 된다.

지도원리는 팔굉일우 즉 민족협화이다. 이것은 일본민족이 3천년 동안 지녀 온, 천황을 중심으로 만민이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주인과 시종으로서의 연대로 일체(一體)적 생명활동체로서 결성된 국체의 체험으로부터 생활적으로 생겨난, 영원불변의 절대이상이며 전 세계인류는 이러한 인간의 원본(元本)적 이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팔굉일우는 전 인류가 알아야만 하는 것이며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기반이자 모체인 일본의 국체를 과학적으로 정당하게 파악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그렇지 않고서 제대로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방공사업은 일본국체의 과학적 연구·파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팔굉일우는 제대로 이해되기 어렵고, 이러한 민족협화의 세계일가(世界一家)주의가 아니고서는 진실한 의미의 공산주의 극복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또한 일본 국체를 정당하게 연구하는 것은 보통 세상에 유포되어 있는 일본주의자, 일본정신 **창도자류의 비과학적 관념론**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것의 대부분은 피상적인 일본민족주의자로 타락하여 있는 것

이 현상이다.

일본의 이상이 것처럼 인색하고 편협한 것이 아니다. 일본의 이상은 세계주의이다. 과학적 연구는 방법론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데, 지금까지 방법론으로서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것이 유물변증법이 있다는 사실을 방공사업에 관계하는 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유물변증법은 일본국체와 일본국체로부터 개화(開花)한 모든 것, 연구방법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국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선 공산주의의 모순, 불합리의 오류를 범한 것은 실은 이 유물변증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연구를 위해서도, 그리고 공산주의의 오류를 지적·극복함에 있어서도 이 유물변증법을 재검토하여 그 모순을 극복·발전시키지 않으면 일보도 나아갈 수 없다.

유물변증법이 오늘날까지의 모든 과학적 방법과 비교하여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진실로 최고인가 하는 것이며 또한 최고의 것은 최고의 진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나는 유물변증법을 나의 세계관으로 삼아왔으며 바로 2년 전까지도 한 사람의 공산주의자였다. - 물론 학문적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도 이전이었지만- 그리고 공산주의운동이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된 이유가 단순히 각자의 비겁함 때문만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3, 4년 전이었다.

원래 공산주의운동은 어떠한 정세에 놓여 있더라도 자본주의사회인 이상, 그리고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에 지배되는 식민지라는 것이 진실인 이상 어떠한 형태로도 그 운동은 계속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상을 보면 조선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든가 아니면 공산주의 이론에 큰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같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그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선문제는 일본을 정당하게 인식하지 않고는 그 해결방법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연구를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하나는 유물변증법을 극복하고 수립하는 생명변증법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의 과학적 인식이다. 여기에서 내선(內鮮) 두 민족은 팔굉일우라는 최고·최대의 이상을 기초로 하여 결합하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생명변증법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내선 두 민족의 일체적·인격적 결합의 실천이론, 즉 팔굉일우의 민족협화이론을 연구하는 동아협화이념연구소를 설립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유물변증법이 과연 진리인가 아닌가이며 다음으로는 일본국체는 어떠한 것이며 팔굉일우는 어떠한 것인가이다.

우선 순서대로 변증법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이 일은 공산주의가 어째서 오류인가 하는 점을 학문적·양심적으로 구명하는 것이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공산주의에 대하여 양심적으로는 한 마디도 비판하지 못하고 단지 공산주의자 협담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사는 것이 되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감정적·적대적 공기를 일소하여 진실로 인간으로 되돌아가 공산주의자에게는 냉정한 반성재료를 제공하고 상호무자비한 검토·비판을 할 마음의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며 민중에게는 자신을 갖고 양심적으로, 공산주의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의 강대한 수행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나는 이 일의 일부에 관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물변증법은 세계를 풍미한 지금까지의 모든 철학적·과학적 세계관의 최고 진리를 표현·집대성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 유물변증법 앞에서는 모든 것이 비판되었으며, 그러한 비판은 경제이론으로서 가치론과 유물사관, 계급투쟁론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의 모든 이론은 사실 이 변증법적 유물론의 토양 안에서 배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사관도 사실은 마르크스주의 구성의 이른바 '상층건축'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계급투쟁론을 뒤흔들고 유물사관의 오류를 지적한다고 해도 마르크스주의 전체로 보면 그것은 가벼운 상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성번영(大城繁英), 「마르크스주의는 방지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듯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이 되는 유물변증법을 비판하지 않고서는 정말로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비판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마르크스주의의 근본이자 토대인 유물변증법의 중핵을 이루는 3명제를 재고(再考)·비판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미리 양해를 구해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일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자 또한 난제이며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3천년이라는 시간을 가진 사상이자 철학을 쉽사리 결론을 지어 선현(先賢)에 대한 무례를 범하려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나에게 반드시 이 중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논해 볼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중핵의 중핵인 이 3명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사실 이 3명제가 비판·극복 된다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비판·극복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는 셈이 된다.

3명제를 보통은 '정·반·합'의 법칙과 '부정의 부정'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2명제는 이미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해서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그것은 '모순투쟁 즉 변화운동발전'이라고 하는 법칙과 '진리는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법칙으로 대체되어 '양질비약의 법칙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는 모두 동일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순투쟁 즉 운동발전이라고 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고레프는 (변증법과 변증법적 방법) 중에서 '정·반·합'과 '부정의 부정' 즉 '삼위일체'를 부정해 버린 것이다. 이하 고레프의 말을 인용하자면

마르크스는 이 삼위일체를 자본의 중심에 두고 적용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변증법의 기본적 특수성인가? 마르크스주의의 수많은 반대자는 반드시 모든 것이 삼위일체의 법칙에 따라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죽은 레닌까지 포함하는 진면목의 진실한 마르크스주의자 몇 사람도 이러한 헤겔의 삼위일체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를 헤겔 관념론의 잔재라고 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엥겔스는 삼위일체가 유기적인 세계에서도 그 특성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논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말했다. -보라- 무엇이 나오는가. 우리들은 씨앗을 뿌렸다. 그것은 죽었다. 즉 식물에 있어서 씨앗의 부정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발달한 그 후의 결과는 어떠한가? 식물은 꽃을 피운다. 꽃은 다시 씨앗을 낳는다. 즉 부정의

부정이 생겨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전의 것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돌아간 것인가? 이전에는 하나의 씨앗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씨앗이 있다. 즉 확대되고 증대된 형태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는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계기가 아니라 네 가지의 계기가 있는 것이라고, 거기에는 아직 꽃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가지의 분할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제4의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은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 삼위일체는 결코 변증법의 기본적 법칙이 아니다. 발전이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부하린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正)에 균형의 파괴가 일어나고 새로운 균형으로 복귀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오히려 변증법적 판단의 건축적 장식삼화이며 결코 변증법적 법칙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나는 개인적으로 헤겔의 삼위일체는 독자적인 수에 대한 신비주의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철학자들이 어떤 수를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3이라는 수가 특히 그들에게 사랑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종교에서의 삼위일체-아버지인 신, 아들인 신, 그리고 성령인 신-로 전화한 바로 그 사유의 삼위일체성이다. 이것은 종교의 잔재, 유해, 신성한 수의 숭배인 삼위일체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도움을 빌려서 공산주의는 반드시 도래한다고 논증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유물론의 반대론자들은 옳다.

라고 말하고 있듯이 '부정의 부정'의 법칙도 아니다. 대나무는 부정없이 뿌리에서 어디까지고, 언제까지고 발전한다. 계기가 없다. 세균은 1회씩 분열하여 발전하고,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다시 나방이 되며 3번 변하여 알이 된다. 그리고 다시 애벌레가 되고 성장하여 번데기가 된다. 여기에는 다섯 번의 계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프는

일반적으로 모순의 투쟁이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본적 법칙이다. 이것은 또한 전 자연 일반의 기본적 법칙이다.

라고 말하며 그 예로서

실제로 물질의 구성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최근의 연구는 물질의 최초의 시원이 전자 즉 원자의 전기적 구성부분 혹은 전기의 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전자는 전기의 에네르기이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전기야말로 내면적 모순의 현상인 것이다. (중략)

이것이야말로 일찍부터 자기(磁氣)의 영역에서 알려져 있던 양극성의 법칙, 이극견인(異極牽引), 동극반발(同極反撥)의 법칙이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전기의 특성이며, 그리고 전기가 전 물질의 기초라고 한다면, 모순의 법칙이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본적 법칙이어야 한다.

나는 이미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의 운동은 모순의 투쟁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했다. 그 운동에는 두 가지 힘이 행성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 가지의 힘은 태양 방향으로 다가가고, 다른 힘은 타성에 따라 가고자 하는 것처럼 반발의 힘이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대립하는 힘의 투쟁의 결과로서 태양을 주위를 도는 행성의 모든 공전운동이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변화하지 않는 모순투쟁이며, 우리들이 아는 한 영원불변하는 무변화의 모순투쟁이다. 거기에서 발전은 볼 수 없다.

(계속)

〈출전 : 姜永錫 「皇道朝鮮(二)」, 『東洋之光』 1939년 8월호, 71~77쪽〉

2. 김두정(金斗禎)

1) 아세아부흥과 내선일체

1.

18세기는 앵글로색슨을 중심으로 한 백색인종의 전성시대였지만, 20세기부터는 우리 일본을 중심으로 한 황색인종의 전성시대로 세계사는 전환하고 있다. 즉 아시아부흥과 국제적 방공(防共) 공작과 투란운동(Turanism)의 영도로 이어지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이상 실현에 매진하는 우리 일본의 세계적 지위는 이 세계사적 전환을 옹변해주는 것이며, 건국 이래의 대성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선일체의 완성이 선행 조건이다.

2.

유사 이래 세계를 문화적으로 무력적으로 지배해온 아시아 인종은 대몽고의 세계정복이나 터키의 구라과 3대륙 제패의 흔적도 없이 과거 3세기 동안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무력적으로도 완전히 백색인종의 말발굽 아래 유린되어왔다. 동양정신은 피폐 소멸했고 무진장한 자원과 보고는 백인에게 강탈당했으며, 이와 더불어 아시아 인종의 거대한 부분은 노예로 변했다.

제정러시아는 1580년부터 우랄산맥을 넘어 시베리아 통치를 시작했고, 1860년까지 흑룡강 이북과 우수리 강 동쪽의 시베리아 전역의 침략을 완성했다. 동양의 보고이자 신앙의 나라였던 인도는 1858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아프가니스탄도 버마도 해협(海峽)식민지도 홍콩도 영국령이 되었다. 인도차이나반도는 1862년에 프랑스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이를 전후로 말레이군도(群島)는 네덜란드의 영유가 되었으며, 필리핀은 스페인을 경유해 19세기 말에 미국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는 10억의 아시아인종에 의해 경영되고 개발되고 방위되어야 할 낙토가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백색인종의 지배하에 예종해서는 안 된다. 아시아는 반드시 부흥해서 아시아 협동체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백색인종을 인종적으로 배격하려는 봉건적 보수적 관념에서 아시아 부흥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수세기 동안 백색인종의 노예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해방되어 독자적인 발전과 인종적 평등을 쟁취하는 것을 아시아부흥의 근본정신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시아의 지도적 지위에 있고 세계평화 수립에서 영도권을 장

악한 일본을 아시아민족들의 맹주로 추대하지 않는 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본은 1894-95년 청일전쟁을 통해 백인의 침략에 각성하지 못한 청국 봉건세력에 일격을 가했고, 러일전쟁을 통해 백색인종의 동양침략에 종언을 고하는 동시에 아시아 민족들의 반(反)백인적 쫓겨나기를 선도했다. 이런 의미에서 러일전쟁을 일대 전환기로 해서 아시아 부흥의 서광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주사변을 통해 동양인의 문제는 동양인 자신이 처리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했으며, 이번 '지나사변(支那事變)²⁾을 통해 구미의존주의의 비(非)아시아적 장제스(蔣介石) 정권 및 이를 조종하여 중국의 분할을 도모하려는 소련과 영국·프랑스·미국의 음모를 분쇄함으로써 동양인의 동아협동체를 구현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아시아 부흥을 그 천부적 사명으로 삼는 일본은 현재에도 장래에도 모든 각도와 분야를 통해 그 지도적 임무를 맡아야 한다.

첫째로, 아시아 피압박 민족들을 백색인종의 지배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정치적 원조 공작을 해야 한다. 일본이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한 반백인적 투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데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아시아 민족들의 해방운동은 아시아 전체로 파급되었고, 터키는 1923년의 그리스·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독립을 확보했으며, 1920년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각국이 독립했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이집트의 흥기, 최근의 필리핀 독립, 인도와 버마의 반영국운동, 시리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반프랑스 운동, 자바의 민족해방투쟁 등의 반백인적 민족 쫓겨나기는 더욱 규모 및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적 지도에 따라 맹방 만주국이 독립하여 멸공연일(滅共聯日)의 아시아적 중국의 재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대부분은 여전히 백색인종의 지배에서 해방하지 못한 상태이고, 따라서 앞으로 일본의 정치적 원조 공작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 민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아시아 민족들은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치적 원조 공작 및 지도를 국제연맹이나 코민테른 등의 백인 침략 국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일본을 맹주로 삼아 오로지 그 지도를 바라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로, 아시아 경제 블록의 완성이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아시아이다. 아시아의 자원과 보고는 아시아인 자체에 의해 개발 경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백색인종을 배 불리는 자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시아의 자원은 구미 각국을 부유하게 하고 아시아 민족들의 공존공영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아시아의 주인공인 아시아 민족들이 궁핍을 감내하면서 자원의 대부분을 백색인종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얼마나 큰 모순인가. 아시아 민족들은 경제적으로 해방하기 위해 아시아 경제동맹 내지 경제블록을 결성해야 한다. 그래서 첫째로 아시아 민족들은 아시아의 공존공영을 위해 아시아 곳곳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원칙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자원 해방 및 인구적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로 일본의 지도 아래 산업·금융 및 기술 등의 원조가 상호 간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2) 중일전쟁.

셋째로, 아시아의 문화적 재건이다. 우리는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일체의 종교의 기원은 아시아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정신문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인도에는 불교가 사라졌고, 중국은 공맹의 도를 버렸고, 유대는 멸망했고, 기독교는 구미인의 종교가 되었으며, 마호메트교도 지금은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시아 인종이 고대부터 노력해온 영적 생활의 건설은 서양의 물질문명으로 인해 소멸했고, 이제 아시아는 광대한 사막과 함께 정신계의 황량한 피폐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퇴영에도 불구하고 홀로 일본만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 즉 물질양면의 일본 문화로 세계문화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민족들은 일본 문화의 완전성을 인정하고 그 지도를 받아야 한다.

넷째로, 아시아 전역에 걸쳐 방공적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코민테른은 구주에서는 스페인, 동양에서는 중국의 적화(赤化)를 완성하고 세계 적화를 완성하려고 꿈꾸고 있으나, 구주에서는 스페인 인민전선군의 패배로 전체주의적인 방공적 스페인의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련과 동맹을 체결한 체코는 붕괴했으며, 여전히 인민전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프랑스는 동서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동양에서도 항일인민전선의 지배하에 있는 중국은 우리 일본의 적극적인 응징으로 소련용공에서 연일 방공(聯日防共)으로 전환했으며, 신동아협동체의 발전에 따라 적화 세력은 장제스 정권과 함께 나날이 오지로 내몰리고 있다. 시안(西安)·란저우(蘭州)를 잇는 적화 루트는 황군(皇軍)의 하늘과 지상에서의 맹공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신장(新疆)·외몽고와 함께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방공공작의 완성으로 동양에서의 방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국제적 방공전선의 영도적 국가 일본의 적극적 대륙정책을 기대해야 하는 동시에, 중국 4억 민중의 멸공구국운동에 의존하는 것이다.

아시아협동체는 주로 이와 같은 4대 원칙 아래 성장해야 비로소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전 아시아인의 각성과 지지와 가맹에 의해 성립하는 아시아적 조직, 즉 아시아 부흥동맹·아시아민족연맹·대아시아협회·아시아문화협회·아시아청년연맹·아시아학생연맹·아시아경제동맹 및 아시아부흥정신대 등등의 결성과 확충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시아협동체는 아시아 부흥과 병행해서 성장하는 것이며, 아시아 부흥은 신동아 건설을 제1단계 전략적 임무로 삼고, 아시아의 방공의 승리로 제2단계를 성취하여 앵글로색슨의 지배에서 수많은 피압박 민족들을 구원하는 것을 제3단계의 전략적 임무로 삼는 것이 순서이다. 이리하여 아시아 부흥이 완성될 때 세계는 아시아 블록과 구주 블록과 아메리카 블록이라는 3대 블록이 대립하게 되는데, 미개발 자원은 아메리카 대륙보다 풍부하고 문화적 건설이나 무력적 정복에서도 유사 이래의 전통을 지닌 아시아는 다시 세계의 리더의 지위에 오르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4.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필연성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우리 노력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이러한 천부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협동체는 우리 제국의 거국일치 체제의 완성을 선결조건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내선일체를 그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한일합병 이래 30년, 그동안 일시동인(一視同仁)과 복리증진이라는 양대 취지를 바탕으로, 비록 약간

의 현안은 남아 있으나 내선일체 공작은 현저한 성과를 올리고 있음은 굳이 논할 것도 없다. 내선일체의 완성을 위한 노력과 속도는 이번 지나사변을 통해 과거 30년간의 실적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융흥을 위해 실로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다. 2,000만 조선반도 동포의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적성(赤誠)은 이번 사변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되어 수만의 사상적 관계자들도 모두 전향하여 충량한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 되돌아왔으며, 그들이 그동안 주창해온 민족해방이라는 문구는 완전히 뇌리에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중간파의 이른바 중앙자치론도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에 기초한 내선일체 운동의 조류에 씻겨 나갔다. 이와 같이 조선반도 사상계의 급격한 전환과 안정은 반도에서의 황민화 교육과 시국을 중심으로 한 흥아적(興亞的) 자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 근원을 이루는 것은 역시 동문동조(同文同祖)라는 역사적 사실이다.

5.

그렇다면 일본과 조선 간에는 어떠한 역사적 관련성이 있을까?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로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은 선조가 같다. 신화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인종학적으로 고찰해서 일본과 조선의 기간(基幹) 종족은 몽골리언 중에서 가장 우수한 퉁구스족이며, 여기에 쌍방 모두 북부에서 들어온 아이누족과 남부에 표착한 말레이족의 피가 다소 혼합되어 있다.

둘째로 일본과 조선 두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동일한 문화를 통해 성장했다. 우선 언어에서 유사한 조어법과 작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현대에도 완전히 공통의 단어를 갖고 있다. 『고사기(古事記)』나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의 고서를 통해 우리는 고대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진무천황(神武天皇)의 노래(御歌)에서도 조선어를 발견할 수 있다. 문화에서도 인도나 중국에서 일어난 정신문화는 삼한시대부터 반도를 경유해 일본열도로 전해졌다(예컨대 불교나 유교). 메이지유신 이후에는 서양의 물질문명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의 근세적 개화에 우선 성공을 거두었고, 따라서 새로운 문화는 일본을 매개로 역으로 대륙에 전파되었다. 일본열도에서는 교차하는 동양의 도의적 정신문명과 서양의 과학적 물질문명이 일본의 독특한 창조성을 기본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통합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완전성을 가진 물심양면의 일본 문화를 완성하였다. 현재 1억 국민은 이처럼 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호흡하고 있다.

셋째로 역사적으로 긴밀한 국교관계를 맺고 있다.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의 왕자 천일창(天日槍)의 일본으로의 귀화, 가야국의 김수로왕(金首露王), 신라의 석탈해왕(昔脫解王), 그 신하 표공(瓢公)의 도래, 임나(任那)에서의 일본부(日本府)의 설치, 백제 왕자 및 왕인박사의 귀화와 논어·천자문의 현상, 삼한시대에 일본열도로의 집단적 이주 및 미술과 공예의 전수, 칸무천황(桓武天皇)의 모친이 조선에서 건너온 점, 일본·백제의 동맹에 따른 신라·당나라 연합군과의 대치, 백제 멸망 이후의 왕족 우대 등 고대의 일본과 조선 간의 우호관계는 실로 영원히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내선일체의 역사적 근거는 이와 같은데, 내선일체 완성을 위한 것은 우선 민족적 편견의 완전한 숙청과 2,000만 동포의 황민화이다. 조선반도는 흥아 전선에서의 전진 병참기지로서도 군사적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아시아협동체 완성에서도 정치적·경제적·문화적 현실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일본

과 조선 두 민족은 반드시 통일단위로서 조직되어야 한다.

6.

총독의 시정(施政) 이래로 제반 선정(善政)이 실시되어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진 조선을 오늘날의 상태에까지 끌어올렸다. 역대 조선총독의 치적을 살펴보면 데라우치(寺內) 총독 시대는 무단 정치를 통해 조선반도의 치안 공작에 큰 성과를 올렸고, 사이토(齋藤) 총독 시대는 4년제 보통학교 3면(面) 1교(校)주의 실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허용, 군사·경찰제의 개혁, 관개시설이나 경작지 확장을 통한 산미증식정책 실시, 섬유 방면의 경공업 장려 등등 글자 그대로 문화정치를 시행했다. 우가키(宇垣) 총독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방자치 확충, 조선 이북 개척사업 착수, 9도(道) 목화 재배, 조선 이북 면양 사육, 산금장려, 심전개발 등 이른바 개발정치는 현저히 그 실적을 올렸다. 현재의 미나미(南) 총독이 부임한 이래 내선일체와 국체명징(國體明徵)에 기초를 둔 황민화정책, 국방적 책임의 분담을 허용·진흥시키는 특별 지원병제의 실시, 내선공학(內鮮共學) 실현을 위한 학제개혁, 1면 2교주의의 구체화에 따른 의무교육 준비, 물심일여(物心一如)와 도의교육(道義教育)에 근거를 둔 교학쇄신, 대공업의 농촌 분산화에 따른 농공병진(農工併進)정책 등등 일본과 조선의 획일화의 적극 정책이 잇따라 실시되어가는 것은 우리 조선 반도인(半島人) 모두 기뻐하는 바이다. 이러한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책의 수행과 미나미 총독의 대영단에 따라 2,000만 동포는 점차 황민으로서 육성되고, 비록 약간의 현안은 남아 있으나 내선일체는 한 걸음씩 완성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30년을 회고할 경우 우리는 미래의 30년을 전망하며 크게 낙관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은 외지 혹은 식민지가 아니라 대일본제국의 하나의 지방으로서 홋카이도나 큐슈와 같이 될 것이며, 따라서 남아 있는 일체의 현안도 해결될 것임에 틀림없다. 즉 조선반도 황민의 민력(民力)·민도(民度)의 향상·충실과 결부되어 납세의 의무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반드시 의무교육제도 실시될 것이며, 황민화 교육의 보급과 병행해서 의무징병제도 구체화될 것이다. 이리하여 일본과 조선 간의 일체의 거리와 장벽이 제거된다면 내지연장주의에 기초하는 모든 정치적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우선 2,000만 조선반도의 동포들이 모두 황민으로서의 소질과 실력을 배양해야 함을 주장하는 동시에, 내선일체는 조선 반도인의 일방적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억 국민의 총 노력에 의해서만 완성된다고 믿는 바이다.

우리 일본은 아시아협동체와 팔굉일우를 사명으로 삼고 국시로 삼는 한 반드시 거국일치 체제를 완성해야 하고, 거국일치 체제는 내선일체의 완성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총 친화·총 노력 국책도 내선일체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아시아협동체도 내선일체의 완성이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다.

아시아 부흥과 내선일체라는 양대 사명은 1억 국민의 흥아적 자각과 황민의식의 고양에 따라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출전 : 金斗禎 「東亞問題特輯 : 亞細亞復興と内鮮一體」, 『東洋之光』 第1卷 第5號, 1939년 5월, 15~21쪽〉

2) 흥아적(興亞的) 대사명으로 본 내선일체

반혁명(反革命) 전야(前夜)에서 모색하는 소련의 세계동란 유발 음모, 부흥독일의 맹목적 영토 확장책, 황혼의 미광하(微光下)에서 오뇌(懊惱)하는 노후(老朽) 영제국의 최후적 폭거, 전체주의 진영에 포위된 불란서의 교육책 등에 의하여 폭발된 제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구라파 각 국은 물질문명의 최후적 총결산기에 직면하여 모든 인위적 파괴공작에 광분하고 있다. 이 세계사적 변혁기에 당면한 전 인류는 구미의 물질문명만으로는 도저히 세계의 신평화체제 수립의 불가능함을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천부(天賦)에 흥아적 대사명을 향유한 물심양전(物心兩全)의 우리 제국의 도의적인 세계사 창조 공작 가운데에 이것을 구현할 가능성을 발견한 전 인류는 열망적으로 우리 제국의 인류구제를 위한 정의의 진군을 희구하고 있다. 이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미래의 역사를 좌우할 역사적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를 중심으로 한 백색인종 전성시대로부터 20세기를 기점으로 한 황색인종 부흥시대로 인류사는 아국(我國)의 영도에 의하여 일대 전회(轉回)를 하고 있으며 저 일로전역(日露戰役)부터 금차의 '지나사변(支那事變)'³⁾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흥아적 성업은 여실히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대륙에 흥아의 성수(聖帥)를 보낸 후 이에 삼개성상(三個星霜) 기간 총용과감한 황군(皇軍)은 유사 이래 공전절후(空前絶後)의 대전과(大戰果)를 거둬들이어 지나 400여 주(州)의 거역(巨億)의 민중을 우리 입장기하에 구제하면서 있는 이 찬연한 역사적 사실은 세계 인류의 함께 찬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흥아적 성업 달성을 위하여는 남지(南支)에 있어서의 대포위섬멸전, 장(蔣)정권 최후의 거점인 중경(重慶) 곤명선(昆明線)의 진격, 서안(西安) 난주(蘭州)를 연결한 적색루트의 분쇄, 외몽(外蒙) 신강(新疆) 서장(西藏) 등 문제가 우리 일본 국민의 부월(斧鉞)을 받아들여 남겨 있다. 다시 시각을 한번 아세아의 전면에 전하면 서백리아(西伯利亞)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방공(防共) 문제가 있고 3억의 민중이 신음하는 인도(印度) 문제 등이 있다.

이에 우리는 백색 제국주의의 세계적 파괴 공작에 현혹되지 말고 세계대전을 계기로 한 이 천재일우의 호기에 흥아적 대사명을 완수하여 백색인종의 철제하(鐵蹄下)에 유린된 거대한 아세아 제인종을 구제하고 나아가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이상의 실현에 매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아국(我國)의 천부적 대사명에 있어서는 거국일치체제 완성에 의한 1억 국민의 동심일체적 단결이 절대 필요하며 내선일체의 완성이야 참으로 그 주요조건인 것이다.

일한합병 이래 30년간 일시동인(一視同仁)과 복리증진의 성지(聖旨)를 중심으로 2천 만 '반도황민(半島皇民)'⁴⁾은 역사적인 대국가 일본의 국민으로서 그 영예와 책무를 분담하여 왔으며 특히 금차의 지나사변을 중심으로 한 2,000만 황민의 반도에 넘치는 애국적 적성(赤誠)과 미나미 총독(南總督)의 대영단과 제반 선정에 의하여 내선일체 운동의 속도는 과거 30년간의 실적을 훨씬 능가할 만치 진전되고 있음은 방가(邦家)의 융흥(隆興)을 위하여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다.

3) 중일전쟁.

4) 조선인을 비하하기 위해 일제가 사용하는 용어. '반도인'.

일시(一時)는 조선 사상계가 다소 소란된 일도 있었으나 역사의 대거륜(大車輪)은 용서 없이 궤도에 희롱하는 장애물을 물리치면서 회전하여 일순일각(一瞬一刻) 내선일체의 도정(途程)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의 수만의 사상 관계자도 전부 전향하여 일본정신으로 사상적 재무장을 하고 새로운 애국적 전사(戰士)로서 혹은 내선일체운동에 혹은 사상국방운동으로 힘찬 보무(步武)로 진출하고 있음은 반도 사상계의 안정을 응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 과거의 거두맹장(巨頭猛將)을 위시하여 과거의 사상적 관계자가 전부 총량한 '황국신민(皇國臣民)⁵⁾으로 환원된 근거는 무엇인가. 그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모순과 소련의 포악한 정치를 여지없이 분석한 결과 이것을 청산하고 일본정신의 진가와 황국의 흥아적 사명을 자각하여 이것이야 진실로 세계의 지도적 국민으로서 사상적 근거로 할 만한 위대한 정신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까닭이다.

그리고 내선일체의 완성은 어떠한 데에 근거를 둘 것인가. 내선 양 민족은 첫째로 동일한 조선(祖先)에서 분열된 종족이며 따라서 혼혈을 통하여 재결합하는 것이 절대로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로 문화적으로 동일한 동양문명의 분위기 속에서 수십 년간 훈육(訓育)성장하였으며 따라서 근세에 있어서의 과학적 물질문명의 혜택도 동일하게 향수(享受)하였고 다시 이 2대문명의 통합으로 완성된 물심양전의 일본문화로 재무장하는 것이 금후 세계의 신문화체제 수립을 영도할 우리로서는 절대 필요한 일이며, 셋째로 동일한 경제적 생활 속에서 즉 인접한 지나에서도 볼 수 없는 근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며, 넷째로 동일한 정치기구하에 혈맥이 통한 결합체로서 구성되고 있는 것이며, 다섯째로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불가분의 관계를 가져 조선반도는 일본의 흥아 전선에 있어서의 전진 병참기지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이 5대 조건은 반도와 내지가 영원히 동일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표시하고 있다.

고대에 있어서 부락의 통일을 통하여 소방(小邦)-가라국(加羅國)이든지 신라(新羅)든지 각각 수십 부락의 통일된 소방-이 되고 중세에 있어서 소방이 통일되어 대방(大邦)-삼한(三韓)의 통일에 의한 조선-이 되고 다시 근대적 통일에 의하여 국민적 생활권을 확대하여 내선일체 혹은 동야협동체(東亞協同體)가 완성됨은 역사적 필연성인 것이며 이에 반대하는 자는 봉건적인 분립주의자이며 시대착오라고 할 수 있다.

내선일체를 완성할려면 위선(爲先) 민족적 편견을 완전히 숙청하고 반도 2천 만 동포가 전부 총량한 황국신민이 되며 황국에 충성을 다하고 위대한 세계사 창조의 임무를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국어보급'⁶⁾과 사용 '씨명(氏名)의 통일'⁷⁾ 내선생활의 획일화에 진력하는 동시에 반도 황국민이 스스로 세계적 문명국민으로서의 역량과 소질을 배양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제반 현안도 점차 해결될 것이며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삼천리에 와거(臥居)하든 2,000 만 황민은 전 세계를 활무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5) 일본 왕이 통치하는 일본 제국의 모든 백성을 칭함.

6) '국어'는 일본어를 뜻함.

7) 한국의 고유한 성(姓)을 일본식 씨(氏) 제도로 강제화하기 위해 1940년 2월 시행된 '창씨개명(創氏改名)'을 뜻함.

반도 황민 제위(諸位)에게 여(余)는 호소한다.

제위는 내선일체를 중심으로 한 애국적 전사로서 아세아 부흥의 건설 전사로서 세계 신평화체제 수립의 십자군으로서 힘차고 용감한 진군을 계속하라. 그러면 제위에게는 반듯이 승리의 월계관이 혜여(惠與)될 것이다.

(필자는 전선사상보국연맹 간사, 조선방공협회 촉탁)

〈출전 : 金斗禎 「興亞的 大使命으로 본 '內鮮一體」, 『三千里』 第12卷 3號, 1940년 3월, 53~55쪽〉

3) 신흥아체제하 조선의 사명

금지두정(金子斗禎)⁸⁾

목차

1. 세계사의 신전환과 신흥아체제
2. 내선일체는 흥아 건설의 제일보
3. 흥아 건설에 있어서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반도
4. 흥아 건설에 있어서 전진 문화기지로서의 반도
5. 아시아 해방에 있어서 반도의 전위적 사명
6. 일본정신 발양에 있어서 반도의 전위적 사명

1. 세계사의 신전환과 신흥아(新興亞)체제

전 인류는 유사 이래 미증유의 변혁기를 맞이해 구미의 파괴적인 물질문명의 최후적 총 결산을 통해 이제 도의적인 황도(皇道) 일본의 세계사 창조 공작으로 귀일하면서 세계 신질서 건설을 향해 매진하고 있다.

동반구에서는 황국(皇國) 일본의 직접적 지도로 동아 신질서 건설이 이루어지고, 서반구에서는 독일·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구주 신질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일본·독일·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세계 신질서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계 신질서 건설 전선은 동시에 국제적 방공전선(防共戰線)과 세계 전체주의 전선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구체제와 구질서의 지양과 더불어 소련의 사회주의 블록도 아메리카 자유주의 블록도 필경 이 세계사 신전환의 조류로 그 국제적·국내적 진로를 개정하는 대세에 있다.

그러나 세계 신평화 체제 수립에서는 구미의 파괴적 물질문명이나 유럽식 패도(霸道)로는 그 항구성

8) 김두정(金斗禎)의 창씨명.